

생존하는
힘겨운
대담한
여성

한국성폭력상담소 20주년

한국성폭력상담소는 1991년 개소하여 약 32,000여회의 상담·지원 활동을 해왔습니다. 이십주년에 기념하여 성폭력상담소를 알리고 성폭력 예방 및 대응 활동, 성폭력의 실태와 바꾸기 운동 등을 통해 여성의 인권 회복, 평등하고 자유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는 여성운동단체입니다.

주소 (121-884)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366-24 2층
전화 02) 338-2890 ~2 상담 02) 338-5801 ~2 팩스 02) 338-7122
이메일 ksvrc@sisters.or.kr 홈페이지 sisters.or.kr 블로그 stoprape.or.kr
트위터 @stoprape

한국성폭력상담소 20년,
새로운 20년을 향해 힘차게 뛰겠습니다.

1991년 4월 13일,
한국사회의 첫 번째 성폭력전문상담기관인
한국성폭력상담소가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지난 20년간 피해자를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성폭력·성차별에 맞서온 한국성폭력상담소의 대답한 도전은
여러분의 공감과 지지의 힘으로 가능했습니다.

이제 한국성폭력상담소는 다시금 새로운 출발점에 있습니다.
20년 동안 이룬 성과에 안주하거나 자족하지 않고
처음의 그 열정과 뜨거움으로 반성폭력운동의
새로운 20년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생존자와 함께한 한국성폭력상담소의 뜨거운 20년,
평화롭고 평등한 세상을 꿈꾸며 더욱 힘차게 뛰겠습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20년,
생존자와 함께한
대담한 도전

- 성폭력피해자 지원 _ 6만 7천회의 상담 _ 03
- 생존자 _ '피해자'에서 '생존자'로 _ 05
- 성폭력 피해 말하기 _ 돌아라 세상아 _ 07
- 열린터 _ 내일을 아는 터 _ 09
- 법·제도 감시와 제언 _ 생존자의 권리 _ 11
- 발길되찾기 _ 공포에 맞서라 _ 13
- 여성주의 자기방어 _ 마음 속 싸움의 크기를 키워라 _ 15
- 생존자의 힘기르기 _ 치유와 성찰의 여정 _ 17
- 교육 _ 성폭력 없는 세상을 위한 머리 맞대기 _ 19
- 여성, 몸, 인권 _ 내가 결정하는 몸과 삶 _ 21

1991-2011
한국성폭력상담소 20년

- 한국성폭력상담소가 걸어온 길 _ 22
- 평화롭고 평등한 세상을 위해 함께한 연대활동 _ 23
- 한국성폭력상담소가 만든 책 _ 24
- 한국성폭력상담소가 만든 영상물 _ 24

6만 7천회의 상담

거기 성폭력상담소죠?

한국성폭력상담소에는 오늘도 상담이 끊이지 않습니다.
다급하게 상담소 문을 두드리며 도움을 청하고,
몇 십 년 만에 처음으로 피해 경험을 이야기 한다며
어렵게 전화를 걸어옵니다.
가해자를 반드시 혼내주고야 말겠다고 기운차게
상담소를 찾기도 합니다.

상담소는 1991년 개소 이래 지금까지
총 6만 7천여 회의 성폭력피해생존자와의 만남을 통해
사건해결을 지원하고, 생존자가 스스로 힘을 찾아가는
치유의 과정에 함께해왔습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성폭력피해자지원은
지난 20년간 세상을 바꿨은
반성폭력 운동의 주춧돌이 되었습니다.

1991-현재 6만 7천여회의 법률, 의료, 심리 상담 및 지원

1991 김○○ 사건 공동대책위원회

1992-1995 김△△·김○○ 사건 공동대책위원회

1993-1999 서울대 조교 성희롱 사건 공동대책위원회

2001 동국대 교수 성추행 사건 공동대책위원회

2002-2005 성폭력추방운동에 대한 명예훼손 억고소 공동대책위원회

2003 신부에 의한 유아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

2004 일양 집단 성폭력 사건 대책위원회

2008 군내스토킹 피해자 지원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우리는 생존해온 것만으로도 강하다
-살롱 키스

생존자

‘피해자’에서 ‘생존자’로

‘성폭력 피해자’라고 하면 보통 깊은 상처로 인해 우울하고 대인관계가 어려울 뿐 아니라 일상생활도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원치 않는 피해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그 감정들을 마주하고 스스로 극복해나갈 수 있는 무한한 힘과 용기,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성폭력피해자를 피해자 victim 가 아닌 생존자 survivor 로 새롭게 부릅니다. 무기력한 피해자가 아닌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생존자인 그/그녀를 지지하며 응원하고 있습니다.

2000 『아주 특별한 용기』(역) 발간

2003 생존자를 위한 다이어리 『A Song of Healing』 발간

2011 『보통의 경험 : 성폭력피해자를 위한 DV 가이드』 발간

들어라 세상아!

성폭력피해경험을 말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성폭력피해를 입었다고 하면 '왜 저항하지 않았는지'
의심하고 '왜 조심하지 않았냐'고 비난받기 일쑤니까요.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이런 비난과 의심에 맞서
성폭력피해생존자가 자유롭게 자신의 경험을 나누는
말하기의 장을 마련해왔습니다.
〈성폭력생존자말하기대회〉, 〈작은말하기〉를 통해
생존자들과 함께 울고 웃고 분노하며 생존자를
침묵하게 하는 사회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성폭력생존자말하기대회

- 2003, 1회 "들어라 세상아 나는 말한다"
2004, 2회 "그녀들의 목소리 세상을 울린다"
2005, 3회 "그녀들의 소란, 공감의 세상을 열다"

- 2006, 4회 "그녀들, 공장에서 별별 말하디"
2007, 5회 "언중유화- 이리 오너려 뽕고 놀지"
2009, 6회 "Speakout in Chorus"
2010, 7회 "춤추는 오름길"

작은말하기

2007 - 현재 매달 마지막 수요일 개최



열림터

내일을 여는 터

함께 사는 가족이나 주변의 지인으로부터
지속적인 성폭력피해를 입고 있다면
당장 그곳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러나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해 성폭력이 발생하는
공간에 머물 수밖에 없는 피해자들을 위해,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성폭력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 <열림터>
와 성폭력피해생존자가 장기적으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자립지지공동체 <하담>을 열었습니다.
<열림터>는 지난 1994년 9월 문을 연 이래 17년 동안
243명의 생존자들이 안전하게 생활하며 안정된 일상을 찾고
자립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열림터>는 그 이름대로 성폭력피해생존자들이
'새로운 삶의 지평을 여는 터'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 1994 부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열림터> 개설
- 2004 성폭력피해생존자 자립공동체 <하담> 개소 (이후 2007년 이관)
- 2007 「전국성폭력피해청소년지원 나침반을 찾아라」 발간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 연장 및 배제를 위한
40,000人 서명운동

현재 **34,100**명 돌파!

법·제도 감시와 제언

생존자의 권리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의 인권을 보장하는 법은
성폭력피해자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나 성차별적 사회·문화의 영향을 받는 법은
'충분히 저항하지 않았다'며 성폭력 피해를 부정하고
평소 '행실'을 문제 삼아 피해자를 의심하는 등
오히려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기도 합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여겨졌던
기존의 법이 얼마나 성차별적 편견에 근거하고 있는지를
드리내고, 성폭력피해생존자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노력해왔습니다.
성폭력 관련법 제·개정운동을 비롯하여
법조인의 성인식 개선 운동, 대법원 판례바꾸기 운동,
수사·재판 과정에서의 2차피해 방지를 위한 활동 등을
적극적으로 펼치며, 성폭력피해생존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991-1993 성폭력특별법 제정 추진 특별위원회

1998 성폭력피해생존자권리현장 발표공동

2003 형사시법정지상에서의 성폭력피해자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2003 성폭력관련 공판에서의 2차 피해와 피해자 권익 연구

2003 법조인들의 성인식 설문조사 및 실태조사

2004-2011 성폭력 수사·재판 시민감시단

2006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 연장 및 배제를 위한 토론회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및 헌법소원 공익소송

2006-2007 성폭력을 조정하는 대법원 판례 바꾸기 운동

2008 직장 내 성희롱 연구 및 토론회

2008 릴레이시민토론 여성인권을 보는 법

2009 성폭력 범죄에 대한 음주감경배제 운동



밤길되찾기

공포에 맞서라

밤길은 여성들에게 두려움과 위협의 대상입니다. 특히 연쇄살인이나 성폭력이 집중적으로 발생할 때면 우리 사회는 여성들에게 밤늦게 다니지 말라며 더 강력하게 여성의 몸과 일상을 통제합니다. 하지만 성폭력은 여성이 조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성차별적 성문화의 결과입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밤길되찾기시위'를 통해 잘못된 책임전가 때문에 여성의 몸과 일상이 얼마나 통제되고 있는지를 알리고 여성이 밤길에서 안전한 권리, 성폭력피해를 입지 않을 권리를 외쳐왔습니다.

"짧은 치마가 무슨 상관, 술 마신 게 무슨 상관! 성폭력은 가해자 탓!", "보호를 내세운 통제는 싫다!" 세상의 통념에 도전하는 힘찬 외침은 공포를 용기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밤길되찾기시위

2004, 1회 "달빛 아래 여성들이 밤길을 되찾는다."(공동)

2005, 2회 "달빛 아래 여성들, 밤길을 되찾다"(공동)

2006, 3회 "달빛 아래 여성들, 몸의 권리와 힘, 기쁨을 되찾다"(공동)

2007, 4회 "달빛 아래 여성들, 총치 아니한가"(공동)

2008, 5회 "날타령-달빛 타고 노는 명화"(공동)

2009, 6회 "달빛 아래 여성들, 어둠의 창안을 해제하다."

마음 속 싸움의 크기를 키워라!

'여자답고' 조신한 몸가짐을 권장하는 사회에서 몸을 마음껏 움직여보지 못한 여성들은 성폭력 피해상황이 닥치면 대부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합니다. 여성주의 자기방어훈련은 성폭력 피해상황에서 여성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여성다운' 몸가짐과 마음가짐을 깨뜨리기 위한 훈련입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자전거 타기와 등산, 격렬한 몸 훈련 등으로 구성된 여성주의 자기방어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여성다움의 좁은 테두리를 넘어 이제까지와 다른 자유자재의 몸과 마음을 만들고, 나아가 삶을 변화시키는 짜릿한 과정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2004 『으랏차차 청소년을 위한 호신가이드』 제작

2004 10대 청소년을 위한 주말도정 '남아차기'

2005 김마워캠프

2006 상인여성 대상 주말도정 'Women's Fighting Spirit
우리는 지금보다 강하게 그리고 자유자재로'

2007 10대 여성 다른 몸 되기 '당신의 시선을 남아서'

2008 방길되찾기시원 자기방어훈련프로그램 진행

2009 성폭력공포토타 프로젝트 '실천처럼 연습하고, 연습처럼
대응하러'

치유와 성찰의 여정

성폭력피해자에게 필요한 것은 몸의 상처를 치료하고
가해자를 고소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성폭력피해 이후의 삶을 계획하고 일상을 살아가기 위한
휴식과 치유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성폭력피해생존자가
지친 자신의 몸과 마음의 상태를 충분히 살피고
이를 통해 사회가 아니라 내가 원하고 바라는 삶을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숨어있는 자신의 힘을 찾아내어
성폭력 경험을 넘어선 다른 삶을 계획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2007- 현재 욕망찾기
2007-2009 꿈배러피

2007-2009 총배러피
2010 미술로 말걸다

성폭력 없는 세상을 위한 머리 맞대기

성폭력 없는 평화롭고 평등한 세상에
한걸음 다가가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성폭력관련 법이나 제도가 정비되는 것만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개인과 공동체가
성폭력을 조장하고 묵인하는 사회를 문제제기하고
변화의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한국성폭력상담소는 교육이라는 통로로
여러 사람들과 만나왔습니다.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성폭력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이해를 높이고,
개인과 공동체가 해야 할 일을 함께 고민하며
평등과 평화가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1991- 현재 성폭력전문상담원교육

1998-2003 초·중등 교사 성교육 워크숍 및 연수

2000 정신지체 장애인을 위한 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2009-2010 어린이를 위한 성·인권교육 <인권감수성 교실>
개발 및 시범교육

2010- 현재 성폭력피해생존자와 함께 살아가기 위한 <전녀감수성교육>

2010- 현재 성폭력가해자상담원을 위한 역량강화 워크숍

내가 결정하는 몸과 삶

성차별적 사회 안에서 여성들은
자신의 몸에 대한 결정을 스스로 내리기 어렵습니다.
우리사회는 여성에게 인구가 많다고 아이를 낳지 못하게 했다가,
저출산이 문제이니 많이 낳으라고 합니다.
또 결혼과 취업에 성공하려면 외모를 철저히 가꿔야 한다고 강요하고,
연예인으로 성공하려면 높은 사람에게
성접대를 해야 한다고도 합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이러한 현실을 문제제기하며
여성들이 임신·출산과 같이 자신의 몸에서 일어나는 일을
국가나 사회, 파트너가 아닌 본인이 결정할 권리,
누구와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를
스스로 선택할 권리를 주장해왔습니다.

또한 여성의 현실을 적극적으로 알려내고
몸과 삶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법과 제도를 제안하며
여성이 자신의 몸과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8 **·** 1기초 강연에 대한 기획 상담

2008 **·** 백수영리더 청취모임

2009 **·** 현재 **·** 고 성자연씨 성폭력 의혹 수사촉구 및 진상규명 활동
여성연예인 인권지원 서포터즈 발족(공동)

2010 **·** 현재 **·** 임신·출산 결정권을 위한 네트워크

2010 **·** 내가 결정하는 몸,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생각하는
영화상영회

1991-2011 한국성폭력상담소 20년

한국성폭력상담소가 걸어온 길입니다.

1991

1991 한국성폭력상담소 개소(4.13)

1993 성폭력 위기센터 개설(이후 2000년 폐소)

1994 부설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얼림터> 개설

1997 부설 성폭력 문제 연구소 개소 (이후 2009년 폐소)

1998 부설 성평등교육문화센터 21세기 여성·미디어 운동센터 개설 (이후 2006년 폐소)

2002 제1회 밝은사회봉사대상 수상

2003 제1회 생존자말하기대회 개최 (매년 개최)

2004 제1회 밤길되찾기사업 공동 개최 (매년 개최)

2004 성폭력피해생존자자립공동체 <하단>개소 (이후 2007년 이전)

2005 여성운동 다담돌 상 "성폭력 피해 생존자 말하기 대회참여자들" 수상

2007 제 12회 여성주간 기념 국가유공자 포상 대통령 표창 수상



▲ 1991
한국성폭력상담소 개소

▲ 1991
성폭력특별법 제정
추진위원회



▲ 1991-1993
김○○·김○○ 사건
공동대책위원회



평화롭고 원만한 세상을 위해 함께한 연대활동입니다.

1991

1991 김○○ 사건 공동대책 위원회

1991-1993 성폭력특별법 제정 추진 특별위원회

1992-1995 김○○·김○○ 사건 공동대책위원회

1993-1999 서울대 조교 성희롱 사건 공동대책위원회

1995-1996 남녀고용평등법 과 직장 내 성희롱 금지조항 신설과 근로자파견법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1997 한국여성단체연합, 전국 성폭력상담소·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회원단체 가입

1998-2005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연대

2001 동국대 교수 성추행 사건 공동대책위원회

2002-2005 성폭력추방운동에 대한 명예훼손 역고소 공동대책위원회

2003 신부예 의한 유아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

2004 말양 집단성폭력사건 대책위원회

2004-2011 성폭력 수사·재판 시민감시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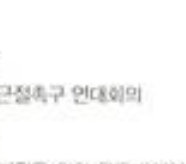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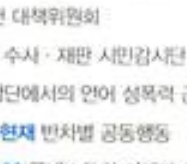
2004 대학 강단에서의 언어 성폭력 근절 촉구 연대회의

2007-현재 반차별 공동행동

2008 군내스트킹 피해자 지원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2010-현재 임신·출산결정권을위한네트워크

2011-현재 처벌금지법제정연대



한국성폭력상담소가 만든 책

단행본

- 1992 『알려진 성문화 새로 보는 성』 동아일보사
- 1999 『섹슈얼리티 강의, 동역』
- 2000 『아주 특별한 용기, 동역』
- 2001 『서울대조교성희롱사건 백서』 (성, 하)
- 2006 『섹슈얼리티 강의 두 번째, 동역』
- 2007 『성폭력 법정에 서다, 무슨사실』
- 2009 『성폭력에 맞서다, 한울』
- 2011 『성폭력위험기-한국성폭력상담소 20년의 회고와 전망, 이매진』
- 2011 『보통의 경험-성폭력피해자를 위한 DV 가이드, 이매진』

지침서 및 자료집

- 1996 『안전하게 자라는 우리 아이들』
- 1997 『성폭력에 관한 법률지침서』 (2001 재판)
- 1997 『성폭력에 관한 의료지침서』 (2003 재판)
- 1997 『중학생 성교육 지침서-건강한 성 만들기』
- 1998 『영업직 여성을 위한 성폭력 예방 지침서』
- 1999 『직장내 성희롱 예방지침서-새로운 직장 문화를 만드는 사람들』 (2003 재판)
- 2000 『피해자를 위한 성폭력 진료 및 수사 지침서』
- 2001 『Deleted 사이버성폭력-성폭력예방 및 대응을 위한 매뉴얼』
- 2004 『서기관원자를 위한 가이드-나침반을 찾아라』 (2008 재판)
- 2003 『성폭력근절 남성도 필요하다: 성폭력근절을 위한 가이드 북』
- 2003 『성폭력관련 공판에서의 2차피해와 피해자권리』
- 2004 『오랫까지 청소년을 위한 호신가이드』 (2009 재판)
- 2004 『친족성폭력 피해생존자 지원 상담매뉴얼』
- 2007 『여성주의 상담, 나침반을 찾아라』
- 2007 『친족성폭력 피해청소년지원 나침반을 찾아라』
- 2007 『성폭력 피해생존자를 위한 법률지침서』
- 2007 『성폭력 조장하는 《법률 판례바꾸기 운동-1차-12차 자료집 모음》
- 2009 『여성주의 자기방어 훈련을 위한 가이드-실천자람 연습하고, 연습자람 대응하라』

한국성폭력상담소가 만든 영상물

- 1993 어린이 성폭력 예방 비디오 『내 몸은 내가 지키요』
- 1995 직장내 성희롱 예방 비디오 『건강한 일터 자유로운 여성』
- 1997 청소년 성폭력 예방 비디오 『너 무슨 생각하고 있니?』
- 2002 유아 대상 성폭력 예방 비디오 『내 몸은 내가 지켜요 II』
- 2004 초등학교 고학년들 대상 성폭력예방 애니메이션 『우리들의 약속』
- 2005 10대 성적자기결정권을 위한 영상물 『R U Ready? 지금 우리는』

자유롭고 평등한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은 '참여'입니다.

시민 모두가 편안하게 이용하는 대중교통
서로 신뢰하며 일하는 일터
아이들이 신나게 뛰어노는 놀이터

성별, 성적지향, 나이, 인종, 장애여부 등이 차별을 만들지 않는 사회
진지한 소통과 따뜻한 연대가 살아있는 사회를 상상해봅니다.
이 멋진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자신이 가진 것을 조금씩 나누는 기부,
기부는 더 넓은 시각과 풍부한 경험을 쌓아가는 과정이며,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는 힘입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의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 후원방법 CMS 자동이체 카드이체 일시기부 등
- 후원계좌 우리은행 441-04-107528
- 후원문의 홈페이지 www.sisters.or.kr (상담소 후원하기-메뉴)
전화 02-338-2890 (후원 담당자)

후원금은 연방영산 시 100% 세금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며,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드립니다.

